

2019 속죄절명절

8월중순 속죄절명절로 인하여 T국의 공공기관은 문을 닫고 모두 고향에 가서 1주간의 명절을 지내고있어 K시의 거리도 한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슬림의 예식은 짐승을 희생하여 그 피를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뿌려짐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속죄절명절때 자주 듣는(Kefaret)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인간이 지은 죄를 사함을 받을 조건으로 죄값에 대한 댓가를 지불한다는것 입니다 죄의 댓가는 가축의 희생이나 인간의 노동이 될수있으며 특별히 피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덮고 깨끗하게 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믿는 죄사함의 유효기간은 단 1년입니다

(벧전1:19)”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것이니라”
(히9:12)”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전통과 문화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믿는 이들중 예수그리스도가 자신의 영원한 속죄물이 되셨음을 믿는자가 나오기를 바라며 함께 중보해주시기



를 부탁드립니다



난민형제에 대한 부담감

K시에서 트램이나 버스를 타면 더이상 아랍어(시리아어)나 페르시아어(아프가니스탄어)를 듣는것이 T국어를 듣기보다 낫설지가 않습니다 T국의 시리아난민통계가 3백5십만명인데 이들중 4십만명이 K시에 정착했을 정도로 난민은 가까이 있으며 난민의 자격이 자의가 아닌 타의로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저희 공동체에 나오기 시작한 M형제(28)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한 믿는 청년인데 종교문제로 협박을 당하는 부친으로 부터 떠나 T국의 다른 도시에 정착했는데 그곳의 아프가니스탄 무슬림형제로 부터 칼로 테러를 당하고 다시 K시에 온후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축현장의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만 현지인의 절반이하 임금이거나 이마저도 찾기가 어려운것이 현실입니다 테러를 당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건강회복과 안정적 직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후 만난 다른 아프가니스탄 난민 형제 Mansur(23)는 내전때 부친이 죽고 모친도 자살한 불쌍한 형제인데 믿음보다는 다른 기대(?)가 있어서 아직 공동체에 초대는 하지않고 말씀을 나누며 케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난민형제들을 전도하고 만남의 기회가 늘어갈수록 염려도 늘어가는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저희를 K시의 현지인사역자로 부르셨다고 굳게 믿고 지난 십여년 작은 공동체사역을 섬겨왔습니다 게다가 난민사역은 실탄(?)이 많이들고 정보당국에 쉽게 노출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인맥도 미국 한인커뮤니티의 몇 공동체로 제한된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형제 한 영혼,한 영혼을 주께서 저에게 맡기셨다면 내칠수도 없는 딜렘마가 동시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새 주일모임장소에서 새 영혼의 울음소리를 듣다

6월까지마지막주일부터 K시시내 골목길 주상복합건물의 2층으로 옮겨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1층은 식당이고 시리아난민이웃이 살고있는 서민거주지역에 저희 공동체가 등지를 틀었습니다 때마침 몇주전 K시에서 법대를 졸업후 변호사로 일하고있는 S형제(40)와 만남의 기회가 있어 복음을 전했고 이번주부터 주일예배에 나온후 세례를 위한 1대1양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S형제는 꾸란을 잘아는 지식인으로 SNS를 통해서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며 성경도 읽은후 저와 만났기에 제가 전도했다기 보다 모세오경을 읽고있는 에티오피아대신에게 접근한 빌립의 심정과 같이 주께서 저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공동체의 U형제부부와 같이 아직 부부사이에 자녀가 없고 법률상담사이트를 운영하다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S형제가 주일모임에 계속 참석하며 세례받고 믿지않는 아내가 믿음을 가질수 있도록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우물파기장인과 조수를 통하여 배우며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오르한파묵의 빨강머리여인이란 소설에 60년대 상수도가 보급되기전 우물을 파는 한 장인과 조수소년의 관계를 통하여 T국의 근대정치와 도시화,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상적인것은 우물을 파는 장인이 자신의 오랜 경험과 직관으로 딱딱한 지층의 수맥이 있는 한 땅을 결정하고 3미터이상 파내려간 바닥에 직접 내려가 흙과 돌 자갈등을 X자형태의 도르래를 통해서 위로 힘겹게 올리면 위에 있는 조수가 양동이로 이를 파올리는 일을 반복하는것입니다 이때 우물파는 장인이 조수를 믿지못하거나 조수가 잠시 방심한다면 도르래로 올리는 흙과 자갈 양동이가 빛의 속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우물파는 장인이 죽을수도 있다는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장인은 어린 조수를 바닥으로 보내서 자신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T국에서 공동체를 개척하고 사역 하는것이 우물이 나올지,실패할지 알수없는 우물파기장인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물을 파는 장인은 제가 아니라 예수이시고 저는 조수가 되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신뢰를 쌓으며 파내려갈수록 반대로 하늘과 가까워질것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동역자님께 다음소식 드릴때까지 평안하시기 빕니다

기도제목

1. 아프가니스탄난민형제 M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테러로 다친 상처가 회복되며 다른 아프간형제 Mansur가 믿음을 가지며 부모를 잃은 슬픔으로 부터 떠날수 있도록
2. 새로 주일예배에 나오는 S형제가 양육받고 세례받으며 믿지않는 아내가 믿음을 가질수 있으며 주께서 자녀가 없는 U형제와 S형제 에게 아기를 주시도록
3. 9월중순 K시근교 대학에 입학하는 시리아난민장애인 Mecit형제에게 필요한 학자금이 채워지며 믿음을 가지도록
4. 주께서 새로 주일모임을 가지는 공동체장소를 악한 영의 공격에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보호해 주시도록
- 5.

T국K시에서 김기쁨/사랑 사역자 드림

후원:Pay to the order: GMP AMERICA(김기쁨,사랑지정)P.O.Box 555 Ellicott City MD 21041